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 2002. 6. 30

월드컵, '하나님의 긍휼'

우리는 한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할 독일과의 게임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선 역사적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는 놀이문화입니다. 스포츠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휴식을 줍니다.

스포츠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즐겁고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즐겁고 좋아도 법대로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면류관을 쓸 수 있을 때 기쁨이 배가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업주의입니다. 상업주의는 순수한 스포츠를 망가뜨립니다. 스포츠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흥분을 주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해주지만 상업주의로 흐르면 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상화입니다. 스포츠가 이상화되면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또 하나는 스포츠 지상주의입니다. 나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스포츠를 권력을 유지해가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월드컵은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월드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요즘 이처럼 즐거운 일은 없었습니다. IMF, 정치, 교육, 경제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실력 이상을 발휘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합니다. 서구에 눌러있는 열등감이 있는 한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자꾸만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도 알 수 없는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보혈을 목상하십시오

이번 월드컵에서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박수 치면서 응원해야 합니까? 이번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정치가가 이 나라를 바꾸지 못합니다. 문화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기 원하십니다. 선교의 주역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한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각계각층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공동선언문을 만들고 합의를 해도 일이 잘 안되었습니다. 통일은 정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요코하마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드라마가 됩니다.

저는 붉은 악마에 대해서도 목상을 많이 했습니다. 붉은 악마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제가 본 귀신은 새까맣습니다. 저는 빨간 귀신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제 뒤에서 기도를 방해하던 귀신들은 새까맣게 몰려다녔습니다. 따라서 붉은 악마를 너무 기분 나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일로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티셔츠에 보니까 'Be the Reds'라고 쓰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붉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공산주의자에게는 혁명입니다. 어떤 이는 열정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게 붉은색은 보혈입니다. 보혈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보혈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저도 보혈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함입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날지어다. 모든 악령은 떠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충만을 받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이단이 되지 않는 법을 배우십시오. 신앙 생활을 할 때 올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독교인은 유신론자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시편 14:1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기독교 신관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가 문제입니다. 신은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무신론, 진화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화론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이론에 세뇌되었습니다. 진화론은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의 가설인데 우리는 믿음을 강요받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라 유일신론입니다. 대부분 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두 가지 신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이삭은 성자,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에게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는 아비의 심정을 알게 하십니다. 이삭은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스스로 제단에 쌓을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혈기 왕성한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순종합니다. 야곱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성령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만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늘 성령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 하십시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긍휼

입니다. 성령의 사랑은 더 구체적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성부, 성자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죄와 사망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면 부활이 있습니다.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